

재일코리안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 연구* **

—언어 사용 상황 및 언어 정체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순 연

Abstract

Lee Soonyoun. 2017. 9. 30. **A Study on the Zainichi Koreans' Recognition of Korean Language-Findings from Language Usage Circumstances and Language Identity Research.** *Bilingual Research* 68, 119-139. This study begins from the question of how Koreans who are born and raised in Japan recognize Korean language. Both the survey and following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language usage circumstances and language identity of the second-,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Zainich Koreans. Most of the participants mainly use Japanese language in their family and did not use Korean language in everyday life despite their experie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rate of using Japanese language in the home was higher even in families with a New Comer parent, but participants use Korean language more often when their mother was a New Comer. There are more of the second-, third-, and fourth-generations of Zainichi Koreans who recognize Japanese as their mother tongue than who recognize Korean as their first language, and even some participants recognize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t was revealed that the Korean language was studied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among Zainich Koreans in this research on language identity. However, it was certain that Zainich Koreans give priority to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communication with Korean people, and the high percentage of them hopes to become bilinguals who speak Korean and Japanese. The identity of Korean as a mother tongue of 'Zainich Korean' or

* 본고는 2016년 11월 5일 제34차 이중언어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 연구는 2016년도 마쓰야마대학 특별연구조성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本稿は、2016年度に交付を受けた松山大学特別研究助成による研究成果の一部である).

'Korean-Japanese' incorporated into Japanese society will become blurred over generations. I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nee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order for Korean language to serve as a connecting vehicle for Korean people. This paper suggests that now it is an important moment to consider the active rol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Zainich Koreans. (Matsuyama University)

【Key words】 Zainichi Koreans(재일코리안), Koreans in Japan(재일동포), Korean-Japanese(한국계 일본인), language identity(언어 정체성), language usage circumstances(언어 사용 상황)

1. 서론

2009년 오사카 미노(箕面) 시¹⁾에서는 일본인 시민을 대상으로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자기 나라의 언어(모어)나 역사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설문 조사가 있었다. 이에 대해 41.5%가 '중요하다', 39.1%는 '대체로 중요하다'고 답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0.6%에 달했다. '중요하지 않다(1.4%)' 혹은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1.7%)' 등의 부정적인 응답은 3.1%에 그쳤다.²⁾ 같은 지역에서 1998년에 외국인 시민을 대상으로 '자녀를 일본에서 키우는 경우, 자신의 모국(민족)의 언어, 역사, 문화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별영주자/영주자/정주자 중 52.9%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34.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2.6%는 응답하지 않았다. 다수의 '재일코리안'³⁾ 올드커머⁴⁾는 특별영주자/영주자/정주자에 속한다(言語權研

1) 2016년 8월 기준, 미노 시의 전체 59,360세대 중 외국인은 1,928세대, 일본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세대는 452가구임.

출처: <https://www.city.minoh.lg.jp/toukei/jinko/j201608.html>

2) 출처: <https://www.city.minoh.lg.jp/jinken/documents/shiryou-hen.doc>

3) 한반도에서 이주해 일본에 영주하는 이들을 재일 동포, 재일 교포, 재일 한국인, 재일 조선인, 자이니치(在日)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함. 본고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에 뿌리를 둔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究會編, 1999:45). 재일코리안을 포함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비교해 출신 국가의 언어 및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교토대학에서 실시한 ‘한국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 <표 1>처럼 세대가 지날수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표 1> 한국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송영빈, 2007:144 재인용)⁵⁾

	가르쳐야 한다	가르칠 필요 없다	모르겠다
재일교포 1세	72.4%	5.2%	20.3%
재일교포 2세	57.4%	9.7%	30.8%
재일교포 3세	40.3%	11.2%	47.0%

본 연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코리안이 한국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다. 세대가 지날수록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일코리안 2-4세를 대상으로 언어 사용 상황과 언어 정체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

나, 선행 연구의 용어는 연구자의 선택을 그대로 표기함.

- 4) 재일코리안은 태어나고 자란 곳, 일본에 온 시기나 이유 등에 따라 ‘올드커머(old comer)’ 혹은 ‘뉴커머(new comer)’, ‘재일중국조선족’으로 구분함. 올드커머는 1910-1945년의 식민지 시대부터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 사이에 일본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들의 자손을 칭하고, 뉴커머는 1965년 이후 이주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재일중국조선족은 1980년대 이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이유로 일본에 정착한 중국 동북부(구, 만주 지방) 출신의 조선족을 칭함. 한국이나 북한 국적의 재일코리안은 54만 명, 일본 국적을 취득한 수는 33만 명, 올드커머는 한국이나 북한 국적의 특별영주자 38만 명, 일본 국적 취득자 중 90%인 약 30만 명을 합해 68만 명 정도로 추산됨(多言語化現象研究会 編, 2013:207-208).
- 5) 京都大学教育学部比較教育学研究室, 『在日韓国・朝鮮人の民族教育意識: 日本の学校に子どもを通わせている父母の調査』(明石書店, 1990:18)

어에 대한 인식을 사례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재일코리안의 오랜 역사만큼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일코리안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 가운데, 강정희(2004)는 2002년에 오사카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이쿠노(生野) 지역의 재일 한국인 올드커머 1-3세 109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재일 1세 33명, 2세 37명, 3세 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는, 세대가 지날수록 모국어가 한국어라는 의식은 급감하고, 일본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일 한국인 2-3세 집단은 한국어를 모국어로서가 아니라 가장 습득하기 쉬운 제2외국어로 인식하고 학습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 이후 한일 양국의 관계 변화, 일본 내 한국어의 위상 변화 등의 요인으로 재일코리안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에 변화는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鄭喜惠 외(2006)는 재일 한국인 148명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과 정체성의 관계를 조사해,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어 사용률이 낮고, 그에 따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의 참여자를 살펴보면, 재일 한국인 1세가 22.3%, 2세가 37.2%, 3세가 40.5%고, 1세의 연령 범위는 29세~81세라고 밝히며 올드커머 3명을 제외하고는 뉴커머라고 했다. 뉴커머의 경우, 한국어를 ‘모어(mother tongue)⁶⁾’ 혹은 ‘모국어

6) 모어는 1) 가장 먼저 습득한 언어, 2)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3) 가장 잘 사용하는 언어, 4) 자기 존재와 관계를 이어주는 언어 혹은 타자와 자신을 연결하는 언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함(小野原信善 외, 2004:53).

(national language)', 제1언어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해, 본고는 뉴커머를 제외한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코리안 2-4세를 연구 대상으로 했다.

임영철 외(2011)는 오사카와 도쿄 지역의 재일 한국인 112명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고, 최호철 외(2016)에서 나고야를 추가해 총 632명의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언어 실태를 조사했다. 임영철 외(2011)의 조사 결과 중 한국어 지향 의식과 한국어 전승 의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과 한국어 전승을 희망하는 응답은 2, 3세에 비해 뉴커머 1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한국어 전승에 관한 문항이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 문항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가 지날수록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전승 의지에 대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녀 세대에게도 물려주고 싶다는 의식의 반영으로 해석했다. 최호철 외(2016)에서는 2세와 뉴커머 1세가 3세 이후 동포들보다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본고는 언어 정체성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시행해 한국어 전승에 대한 의견을 살피고자 한다.

재일코리안 간 결혼한 올드커머 2세 이후를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한 양희정(2016)은 조사 참여자 68명 중 56명이 한국어와 일본어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12명은 일본어를 단일언어로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재일코리안 간 결혼한 경우로 한정했음에도 가정 내 언어는 거의 일본어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언어화자를 대상으로는 2000년 전후보다 한국어 사용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50%에 해당하는 28명이 늘었다고 응답했고,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명이었다. 즉, 한국어 사용이 늘어난 올드커머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코리안 가정의 방문 인터뷰를 통해 실제 가정 내 언어 사용 모습을 살피고, 언어 사용 환경이나 인식 등에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참여자 정보

본고에서는 재일코리안의 언어 사용 상황과 언어 정체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자,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재일코리안 2-4세를 대상으로 방문 및 E-mail 등을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회수한 설문 결과 중 한국에서 태어나 이주한 1세와 1.5세를 제외한 33명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부모 중 한쪽이 3세, 한쪽은 뉴커머인 경우 3.5세로 분류했다.

<표 2> 참여자의 기본 정보

연령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
	1명	17명	9명	4명	1명	•	1명
재일	2세	2.5세	3세	3.5세	4세		
	2명	9명	13명	3명	6명		
성별	남자			여자			
	12명			21명			
국적	한국		조선		일본		
	20명		1명		12명		

본고는 한국어 사용 가능자와의 접촉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재일코리안을 포함하고자 했으나, 실제 참여자의 출생 지역 및 거주 지역을 보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킨키(近畿) 지역과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 지역의 참여자가 가장 많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자, 양희정(201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재일코리안은 한국 관련 커뮤니티에 속해 있거나 활발히 교류하는 경우가 드물어 재일코리안 대상 연구에 참여시키기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표 3> 참여자의 출생 지역 및 거주 지역

출생 지역											
킨키			간토			시코쿠	츠크쿠	츠후부		큐슈	
15명			11명			2명	2명	2명		1명	
오사카	효고	교토	도쿄	치바	토치기	에히메	오카야마	아이치	니가타	오이타	
12명	2명	1명	7명	3명	1명	2명	2명	1명	1명	1명	
거주 지역											
간토				킨키			시코쿠	츠크쿠	츠후부	큐슈	
17명				10명			3명	1명	1명	1명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	오사카	효고	나라	에히메	오카야마	아이치	후쿠오카	
13명	2명	1명	1명	8명	1명	1명	3명	1명	1명	1명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사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방문을 통해 가정 내의 언어 사용 상황 및 대화 상대자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를 살필 수 있었다. 방문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 방문 조사 개요

	지역	시기	장소	참여자
가	오카야마 (츠크쿠)	2016.9.	재일코리안 가정	뉴커머 어머니, 재일코리안 성인 자녀 2명, 한국인 친구
나	후쿠오카 (큐슈)	2016.12.	재일 한인 교회	재일코리안 목사 및 신도, 일본인 신도, 한국인 신도
다	오사카 (킨키)	2016.6.	오사카 시내 식당	재일코리안 2세 어머니, 성인 자녀 2명
라		2016.12.	재일코리안 가정	재일코리안 부부 및 유아 자녀
마			오사카 시내 카페	재일코리안, 일본인 친구

(가)의 한국인 친구는 일본에 일시 방문하여 일본어를 전혀 할 수 없었고, (나)의 일본인 신도는 재일코리안 3세와 결혼해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다)의 일본인 친구도 한국 유학을 통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대화 참여자에 따른 언어 사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국어 능력, 언어 사용 상황, 언어 정체성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했고, 모든 설문 내용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표기했다.

<표 5> 설문 조사 내용

	내용
한국어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경험 여부 •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언어 사용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의 대화 언어 •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 여부
언어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어 정체성 • 주관적 인식 • 언어 감정 • 언어 인지 • 언어 행동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코리안 2세 이후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기에 일본어 능력에 대한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했다. 한국어 교육을 경험한 경우에는 한국 유학이나 민족학교 재학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습 기간을 기술하도록 했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영역에 대해서 4단계로 판단하도록 설문 내용을 구성했다.

언어 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와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에 대해 5단

계로 나눠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고, 사용 상황과 대상에 관해서도 기술하도록 했다.

모국어⁷⁾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복수 응답을 허용한 다음의 다중 선택 문항을 제시했다. 강정희(2004)는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①일본어 ②한국어 ③잘 모르겠다’는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본고는 복수 선택을 허용함과 동시에 회피를 통한 무응답을 가능하게 문항을 제시했다. 또한, 각 언어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p><보기>에서 적절한 표현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 주세요.</p>		
1) 한국어는 나에게 ()
2) 일본어는 나에게 ()
----- <보기> -----		
① 외국어다(外国語だ)	② 모국어다(母国語だ)	③ 중요하다(大事だ)
④ 필요하다(必要だ)	⑤ 부담스럽다(負担だ)	⑥ 간단하다(簡単だ)
⑦ 어렵다(難しい)	⑧ 관계없다(関係ない)	⑨ 배우고 싶다(学びたい)
⑩ 배우고 싶지 않다(学びたくない)		

언어 정체성에 대해서는 재미 한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체성 구성 요인과 언어 정체성을 살펴본 김태진(2016)의 설문 내용 중 언어 정체성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해 대상에 맞춰 재구성했다.

7) 徐 京植(2008)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일반 사회생활에서 모어와 모국어의 개념상 구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양국 모두 단일 민족 국가관에 기인한 국어라는 민족주의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라고 함. 이에 본고의 설문에서는 모어와 모국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선택지에 모국어라는 용어를 제시함.

<표 6> 언어 정체성 관련 설문 문항(김태진, 2016:83-87 발췌해 수정함)

주관적 인식	
내용	언어 사용을 통해 자신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것
문항	•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나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느낀다.
언어 감정	
내용	해당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정의적 측면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국어를 들으면 반갑다.
언어 인지	
내용	언어에 대한 신념 및 인식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어, 일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이중언어화자가 되고 싶다. •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 힘이 들더라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 것이다.
언어 행동	
내용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활동
문항	•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판단하도록 제시했다. 일부 문항은 인터뷰에서 추가 질문을 시행했는데, 언어 감정 중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국어를 들으면 반갑다’는 문항은 ‘일본어를 들었을 때’라는 질문과 ‘일본이나 한국이 아닌 의외의 장소에서 한국어(일본어)를 들었을 때’라는 질문을 추가했다. 언어 인지 중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 및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4. 연구 결과

4.1. 한국어 능력

한국어 학습 경험에 대해서는 29명이 학습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4명으로, 이 중 3명은 한국어를 전혀 혹은 거의 구사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1명은 어머니가 서울 출신의 뉴커머로 한국어를 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적은 없으나 가정 내 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관식으로 응답한 교육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한국어 교육 장소(복수 응답 허용)

일본 내 대학 등 교육 기관 (민족학교 제외)	조선학교 등 민족학교	한국 유학 및 친척 방문	가정 내 교육 (독학 포함)
12명	3명	14명	4명

한국어 교육 기간은 기관 등에서 공부한 기간으로, 통신 교육 등으로 독학한 기간은 포함했으나, 가정 내 교육은 제외하여 27명의 결과만을 넣었다.

<표 8> 한국어 교육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1명	2명	6명	3명	5명	3명	3명	4명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기에 한국어 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영역에 대해서 자기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 참여자가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표 9> 한국어 능력 자기 평가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듣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가능	17명	19명	18명	14명
조금 가능	7명	8명	10명	8명
거의 불가능	7명	3명	2명	6명
전혀 불가능	2명	3명	3명	5명

4.2. 언어 사용 상황

한국어가 가능한 참여자가 다수였으나, 가족 간의 대화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고, 일본어만 사용 혹은 주로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수는 28명, 양쪽을 비슷하게 쓴다고 답한 경우는 5명이었다. 이 5명은 모두 어머니가 한국에서 뉴커머로 온 경우였다. 부모 중 뉴커머가 있는 14명의 가정 내 언어 사용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 부모 중 뉴커머가 있는 가족의 사용 언어

부모가 모두 뉴커머		아버지가 뉴커머		어머니가 뉴커머	
2명		4명		8명	
일본어	한/일	일본어	한/일	일본어	한/일
1명	1명	4명	0명	4명	4명

부모 중 한쪽이 뉴커머인 경우에도 가정 내 대화는 많은 경우 일본어로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국에서 온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 조사 (가)에서 뉴커머 어머니와 자녀 간의 대화 상황을 관찰한 결과, 일본에서 약 40년간 거주한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슷하게 사용했다. 그에 비해 자녀들은 상황에 따라 코드 스위칭은 하

나, 주로 일본어만을 발화하고 있었다. 자녀 중 한 명은 한국어 교육 경험은 없으나 뉴커머 어머니의 입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교포 자녀들은 구어 생산은 어려워도 듣기 능력은 우수하다는 이해영(2010)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일코리안 2.5세 남편과 3세 아내, 유아 자녀로 구성된 (라) 가정에서의 대화도 위 사례와 유사하게 대부분 일본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특정 단어, 예를 들어, 자녀에게 친족을 지칭할 때 ‘할아버지’ 등의 어휘는 한국어로 발화하며 대화가 진행되었다.

재일코리안 2세 부모와 3세 자녀로 구성된 (다) 가정은 일본어만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이 가정의 경우, 2세 어머니는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어서 한국어로 발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해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3세 자녀들은 2년 정도 한국어를 배웠으나,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거의 혹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는 23명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에 비해서 많았다. 조선학교 등 민족학교에 다닌 참여자 3인도 현재는 거의 혹은 전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코리안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으나,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과의 대화나 한인 교회, 직장, 한국인 친구와의 대화, SNS 등에서 사용한다고 답했다.

<표 11>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사용

대부분 사용	자주 사용	가끔 사용	거의 쓰지 않음	전혀 쓰지 않음
1명	4명	5명	12명	11명

식당에서 주문하는 상황 등 일본인을 상대로 발화할 때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일상생활에서 일본인과의 접촉이 빈번한 재일코리안의 주 사용 언어는 일본어임을 방문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

었다. 김미선(2011), 곽은심(2014) 등에서 대화 상대에 따라 재일코리안의 언어 사용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방문 조사 (가)의 2세 자녀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에서는 주로 일본어만을 발화했으나, 관광을 온 한국인 친구에게는 한국어로 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 (마)의 경우처럼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는 코드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 재일코리안이 함께 대화한 (나)의 경우, 화자가 자신의 제1언어로 발화하면 청자는 자신의 제1언어로 답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때 재일코리안의 주요 언어는 일본어임을 알 수 있었다.

4.3. 언어 정체성

4.3.1. 모국어 정체성

복수응답과 무응답을 허용한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 문항에서 일본어를 모국어라고 응답한 수는 20명,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응답한 수는 12명이었다. 이 중 4명은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를 모국어라고 답했고, 무응답자는 5명이었다.

방문 조사 (다)의 사례자인 일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재일코리안 3세의 20대 자녀 2인은 일본의 공립학교를 다녔음에도 학령기까지는 한국 국적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 여행을 계기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후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일본 국적 취득과 관계없이 제1언어는 일본어였고, 주사용 언어가 국적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이다.

재일코리안 2세 아버지와 뉴커머 어머니의 자녀인 (마) 사례자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모국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1언어는 일본어나 한국어 역시 반(半)모국어로 생각한다고 했다. 양친이 모두 뉴커머인 (가) 사례자의 경우, 일본어를 모국어로 한국어는 외국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어에 대해서 외국어라고 응답한 경우는 1명에 불과했으나, 한국어를 외국어라고 응답한 수는 13명이었다.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1명을 포함해 조선학교 출신의 3명은 모두 한국어를 외국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4.3.2. 주관적 인식

언어 사용을 통해 특정 집단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는 ‘주관적 인식’에 관한 문항인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나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느낀다.”에 대해서 설문 조사의 결과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각 10명, ‘보통(어느 쪽도 아니다)’은 9명, ‘전혀 그렇지 않다’가 4명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4명 중 2명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문 조사 (나) 참여자 중 재일코리안 2.5세 사례자는 이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는데, 직장 생활에서 필요하여 회화 수단인 언어로 학습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한국인 혹은 한민족이라는 느낌은 없다고 했다.

(라)의 참여자 재일코리안 부부 중 재일코리안 2.5세 남편은 ‘그렇다’고 생각해 유아 자녀도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게 한국어로도 발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일코리안 3세인 아내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 가족 내에서도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가) 참여자 중 재일코리안 2세 사례자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하며 “재일이니까”라고 이유를

설명해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었다.

4.3.3. 언어 감정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정의적 측면에 관한 ‘언어 감정’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해 22명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명에 그쳐 한국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응답자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8명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답했고, 6명은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뉴커머인 어머니와 한국어로도 의사소통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한 2.5세도 있으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라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자랑스럽다고 한 2세도 있었다. 즉, 한국어 구사를 통해 자랑스러움을 느낀 것은 민족어를 구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국어를 들으면 반갑다”는 문항은 14명이 ‘보통(어느 쪽도 아니다)’이라고 답했고,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는 12명,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7명이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방문 조사(가)의 재일코리안 2세 사례자는 인터뷰에서 의외의 장소에서 일본어를 들으면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어를 들으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한류 등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주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역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대두될 때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가)의 일본에 거주한 지 40년이 된 뉴커머 어머니도 한국인 관광객도 많고, 주변에

재일코리안도 많아 한국어를 들어도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언어 감정’ 영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이를 통해 자긍심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4. 언어 인지

언어에 대한 신념 및 인식에 관한 ‘언어 인지’ 문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18명이 ‘매우 그렇다’, 10명이 ‘그렇다’고 답해 전체 문항 중 긍정적으로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이중언어화자가 되고 싶다.”라는 문항과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도 긍정적인 회신이 다수였고, 한국어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조사한 문항에서도 ‘중요하다’, ‘필요하다’,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각각 19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어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과 함께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및 한국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한계이기도 하다. 한국어를 학습하게 된 계기는 ‘가족, 친척과의 의사소통’, ‘민족학교(조선학교) 재학’, ‘재일 한인 교회에서 학습’ 등 재일코리안의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를 일상생활 등에서 발화하지는 않아도 귀에 익숙한 언어, 반(半)모국어, 생활의 일부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 정체성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 가정의 경우는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어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는 2세가 자녀인 3세에게 한국어를 배우도록 권한 사례로, 본인은 1세인 부모가 일본 사회에 동화되어 사는 것을 권해 한국어를 배울 기회

가 없었으나, “재일”이라고 하며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혼란을 느껴 자녀에게는 학습을 권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의 한국어 학습 이유를 민족어라는 이유로 한정할 수는 없었다. 직장에서 필요해 한국어를 학습했다는 2.5세 참여자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재일코리안의 언어 사용 상황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한국어 전승 의식에 대해서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언어 인지 문항 중 “힘이 들더라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 것이다.”는 21명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답해 한국어 학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문항에는 ‘보통(어느 쪽도 아니다)’이 1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은 13명에 그쳐 도구적 동기에 의해 한국어를 학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최호철 외(2016)와 같이 재일코리안의 한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일본에서의 한국어의 위상과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재일코리안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주오사카총영사관의 2015년 한글학교 운영 현황⁸⁾을 보면, 관할 지역의 한글학교 총 52개교 중 34개교가 수강 인원의 감소로 지원금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며, 그중 1개교는 결국 폐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본에서 한국어 수요가 줄어드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4.3.5. 언어 행동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활동에 관한 ‘언어 행동’ 영역의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항은 ‘매우 그렇다’가 4명,

8) 출처: 오사카한국교육원

http://osaka.kankoku.or.kr/admkorean.brd/_1.1.17b24fc4/?shell=/index.shell:43

‘그렇다’가 6명으로 긍정적 회신이 10명에 그쳐 다른 문항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다.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김태진(2016)의 재미 한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도 동일하다. 이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4명은 모두 일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고, 이 중 2명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방문 조사 (가)의 재일코리안 2세 사례자는 한국 유학을 통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기는 했으나,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아 현재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내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 언어 행동 면에서 보다 높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코리안 33명을 대상으로 한 언어 사용 상황 및 언어 정체성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린 재일코리안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가정 내에서도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부모 중 뉴커머가 있는 경우도 가정 내에서 일본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머니가 뉴커머인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또한, 일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사례자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이보다 많았고, 한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해 연령별, 세대별로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재일코리안, 한국계 일본인의 한국어의 모국어로서의 정체성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희미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2002년에 조사한 강정희(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14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언어 정체성 관련 조사에서도 한국어에 대해 외국어로 인식하고, 특별한 감정이 없거나 제2외국어로서 학습하고 있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및 한국어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를 통해 자긍심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한국어 구사를 통해 한민족임을 느끼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한민족의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재일코리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재일코리안의 언어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확인했기에 추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이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재일코리안 및 한국어 사용 가능자와의 접촉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재일코리안의 인식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양상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정희(2004).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조사- 오사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86호, 한국어문학회, 1쪽~29쪽.
- 곽은심(2014). 오사카 재일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1세의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조사-코드 스위칭의 기능적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27권,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43쪽~68쪽.

- 김미선(2011). 재일 한국인의 언어 상황,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화
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47쪽~62쪽.
- 김태진(2016).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정체성 구성요인과 언어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송영빈(2007). 대중가요 가사를 통해 본 재일교포 2세의 정체성, <이민자 문화를 통
해 본 한국 문화>, 이화 한국학총서5, 115쪽~148쪽.
- 양희정(2016). 한일 이중언어화자에게 있어서 한국어 및 조선어 사용에 관한 사회
환경적인 요인 -재일코리안 올드커머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96권 1
호, 한국일어일문학회, 67쪽~85쪽.
- 이혜영(2010). 재미 교포 초급 학습자와 비교포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비교,
<이중언어학> 44호, 이중언어학회, 275쪽~294쪽.
- 임영철 외(2011).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최호철 외(2016).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多言語化現象研究会 編(2013). 多言語社会日本その現状と課題, 三元社.
- 徐 京植(2008). 母語と母国語の相克-在日朝鮮人の言語経験, <人文自然科学論集>, 126
호, 東京經濟大学, 33쪽~55쪽.
- 小野原信善 외(2004). ことばとアイデンティティ, 三元社.
- 言語権研究会 編(1999). ことばへの権利—言語権とはなにか, 三元社.
- 鄭 喜惠 외(2006). 在日韓国人の言語使用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 <多文化關係学>,
3권, 多文化關係学会, 141쪽~149쪽.

이순연(LEE Soonyoun)

Matsuyama University 인문학부 특임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수료

4-2, Bunkyo-machi Matsuyama-shi, Ehime-ken, Japan

전화번호: +81-(0)89-900-8348

전자우편: slee@g.matsuyama-u.ac.jp

접수일자: 2017년 7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9월 7일

게재확정: 2017년 9월 18일